

이덕일의 ‘역사의 창’



임나가 호남까지 차지했다고?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 강점 직후 ‘조선반도사’를 편찬했다. 조선총독부의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이 사업을 주도했는데, ‘반도사’라는 이름에 이미 한국사의 무대에서 대륙과 해양을 삭제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

‘조선반도사’는 반도의 북쪽에는 한(漢)나라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남쪽에는 고대 야마토왜의 식민지인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모두 외국의 식민지였으니 일제의 식민지가 된 것은 한국사의 당연한 귀결이자 일제의 한국 강점은 침략이 아니라 과거사의 복원이라는 강변이었다.

메이지시대 일본군 참모본부는 임나가 곧 가야라는 ‘임나=가야설’을 만들어 퍼뜨렸다. 현재 국내 상당수 고대사학자들이 추종하는 ‘임나=가야설’의 원산지가 한국을 점령한 일본군 참모본부였다는 뜻이다. 이들은 왜곡이 심하기로 정평난 ‘일본서기’(日本書紀)를 가장 큰 근거로 삼고, 여러 사서의 단편적인 임나라는 기

술을 아전인수해서 ‘임나=가야’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임나’의 강역이 계속 확장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쓰다 소키지(津田左右吉)는 ‘임나’를 지금의 경남 김해 일대라고 비정했는데, 이마니시 류는 이를 경북 고령으로 확장시켰다. 스에마쓰 아스카즈(末松保和)는 일본으로 쫓겨 간 후 저술한 ‘임나흥망사’(1949년)에서 임나를 전라도까지 확장시켰다. 강역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자의적인 강역 추정임을 알 수 있다.

스에마쓰가 ‘임나’를 전라도까지 확장시킨 근거는 ‘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神功) 49년(369년)조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이었다. ‘일본서기’에 야마토왜에서 침미다레를 점령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침미다레가 전남 강진이라는 논리였다. 스에마쓰는 ‘일본서기’에만 나오는 침미다레를 전라도에 비정하기 위해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 한국의 역사서와 지리지들 뒤졌지만 비슷한 지명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할 지명을 전라도에서 찾으니 있을 턱이 없

었다.

그러자 스에마쓰는 기발한 착상을 했다. ‘침미다레’의 일본발음인 토무타레(トムタレ)를 가지고 전라도 지역의 옛 지명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삼국사기’ ‘지리지’ 무진주(武珍州)에 속한 군현 중에 도무군(道武郡 : 전남 강진)이 있었다. 그러자 스에마쓰는 ‘일본서기’의 침미다레가 ‘삼국사기’의 도무군이라고 강변했다. 스에마쓰는 ‘토무다레’에서 ‘다레’는 빼 버리고 ‘토무’만 남겨서 침미다레가 강진이라고 비정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통하려면 근조고왕(재위 346~375) 때 백제인들은 일본어로 말하고 썼어야 하지만 어차피 학문 논리가 아니니까 상관없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지명 비정을 한국의 여러 고대 사학자들이 추종한다는 사실 이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스에마쓰를 추종해 침미다레를 강진으로 비정한 학자가 최근까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였다. 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국민세금으로 발간한 ‘역주 일본서기’(전3권)를 보면 일본 국가기관인지 대한민국 국

가기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남한의 최재석·문정창·이병선·김인배·김문배 등 수많은 학자들이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 열도 내에 있었다고 비정했다. 북한의 김석형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역주 일본서기’는 ‘임나=일본열도설’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완전히 무시하고 임나의 위치를 한반도 남부로만 비정했다. 참고 문헌에도 ‘임나=일본열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저서·논문은 일절 수록하지 않았다. 역주자 7명이 모두 일본의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란 점은 차지하고라도 대한민국 세금 가지고 일본 국우파들의 역사관만 전파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약간의 상식만 있어도 식민사학이 우리 사회의 가장 오래되고 뿌리 깊은 적폐라는 사실 모두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권이 과연 이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지, 많은 국민이 우리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기 고

옥정호 수면 개발, 도민이 우선 돼야



유 진 섭
정읍시의회 의장

정읍시민에게 옥정호는 어떤 의미일까? 옥정호하면 먼저, 아름다운 산이 호수 주위를 병풍처럼 드리우고 산길 따라 굽이굽이 펼쳐지는 환상적인 호수 경관을 떠올리게 된다. 특히 청명한 하늘 아래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옥정호 수면을 본다면 누구나 감탄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힐링을 하면서 여유와 행복을 느낀다.

그뿐인가. 옥정호는 12만 정읍시민이 먹을 식수와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고마운 호수, 생명수를 공급하는 원천으로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물자원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정읍시민에게는 마음의 안식처이자 어머니의 젖줄 같은 옥정호가 난데없이 도마에 오르고 몸살을 앓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 7일 옥정호의 70%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임실군에

서 대규모 수상 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다. 임실군에서는 옥정호에 배를 띄우고 수상 스키장과 각종 편의 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었다.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읍시에서는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지난해 11월 전북도가 중재에 나서 ‘선 수면, 후 수면’ 개발방식에 양 시·군이 합의함으로써 일단 진정이 되긴 했지만 최근 전북도에서 옥정호 수상 레저단지 연구 용역을 진행,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선 수면, 후 수면’ 개발은 옥정호 수면 개발을 위한 관련 현안 사업들은 조속히 추진하되, 수면 이용은 민간 협업체를 구성해 환경 영향 평가 후 논의에 나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연구 용역 대부분이 발주 기관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수도 없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정읍에서는 시민단체 위주로 환경 영향 평가 이전에 정읍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확보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임실군에서 정읍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를 단순한 개발의 대상으로 삼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는 자체와 전라북도의 숨은 의지가 결합된 단기적 사고

의 결정판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정읍시 관할 옥정호 주변은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지만 임실군 관할 주변은 수많은 음식점과 카페, 숙박업소가 들어서 있어 난개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또 2017년 섬진강댐 주변 지원 사업비(지자체, 댐관리단) 17억원중 62%에 달하는 11억 원은 임실군에, 정읍시는 4억원, 순창군은 1억 5000만 원, 완주군에는 1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임실군에서는 옥정호 청정한 물 위에까지 대규모 수상 레저단지를 조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옥정호는 섬진강댐 조성으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계화도 간척지 등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실향민으로 전락한 수몰민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다. 대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2만여 명의 수몰민들의 아픔을 대가로 탄생한 옥정호는 지난 50여년 동안 수십 만 명을 살리는 생명수로 쓰이면서 수몰민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는 호수이다.

이렇듯 일반 관광 자원과 다른 옥정호의 특징을 무시한 채 12만 정읍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관광 사업을 하겠다는 임실군의 처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묻고 싶다. 입장을 바꾸어 임실군민이 먹는 식수원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배를

타고 수상스키를 즐긴다면 임실군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지도 묻고 싶다.

개발은 곧 오염이다. 제 아무리 친환경적인 개발을 한다 한들 환경 오염은 불가피할 것이고, 오염을 해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임실군에서는 엄청난 개발 비용과 유지 비용이 수반되는 개발 이익보다는 자연과 사람이 우선인 보존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임실군은 옥정호 수면 개발로 정읍시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자연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북도에서도 더 이상 정읍시와 임실군민의 갈등을 부채질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다. 정읍시민이 깨끗하고 청정한 식수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옥정호 맑은 물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수 있게 전북도와 임실군에 옥정호 수면 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社 說

특조위 제출 국방부 자료도 왜곡 잘 살펴야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국방부 등으로부터 비밀 해제 문건을 비롯한 다양한 5·18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서 5·18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건 상당수가 5·18을 폭동으로 규정할 목적으로 작성됐고, 심지어 기밀문서조차도 왜곡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위는 최근 국방부로부터 계엄사령부 역사 자료집인 ‘계엄사(史)’ 등 비밀 해제 문서 16건을 제출받았으나 ‘계엄사’의 주요 내용이 왜곡된 데다 허위 내용을 많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엄사’는 계엄사령부가 1980년 5월 18일~27일 5·18의 전개 과정을 기록한 문건이다.

‘계엄사’는 5월18일 기록에서 전남대생들이 대학 정문에서 사전에 준비한 돌을 책가방에서 꺼내 던지면서 사태가 시작됐다고 적었다. 그러나 목격자 증언과 각종 자료에 따르면 당시 투석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군의 구타에

맞서 학생들이 정문 인근 공사 현장에서 벽돌 등을 꺼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상태다. 또한 5월20일 기록에는 “극렬분자들은 직장예비군을 습격, 총기 및 탄약을 탈취했다”고 적혀 있으나 전남경찰청 조사 보고서에는 시민들이 5월20일 밤 실탄이 없는 칼빈 17정을 획득했으며, 본격적인 무장은 5월21일 오후 1시30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군인들이 난동자들에게 잡혀난자 살해되는 것을 보면서도 발포를 억제했다”는 내용과 같은 날조된 대목도 있다. 신군부 차원의 5·18 왜곡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5·18특조위는 기밀문서일지라도 자료의 신뢰성을 따져 진상 규명에 혼선이 없도록 해줄길 바란다. 또한 당시 왜곡된 기록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기록을 바탕으로 생성된 자료들이 군 내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도 잘 살펴 이를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도심 마을과 건축물 도시 재생 자산으로

광주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 조성 등 개발 열풍이 불면서 고유의 문화를 간직한 마을과 근대 건축물들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의 재개발과 재건축에 이어 공공기관 주도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까지 추진되면서 도시의 역사가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755만4149㎡에 이르는 122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등 도시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다. 이 가운데 민간 건설업체가 주도하는 주택 재개발 등은 52곳 가운데 13곳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고 있고, 주거 환경 개선 지구는 49곳이 공사를 마쳐 단독 주택지 상당수가 도로나 주차장 또는 공원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 재생 뉴딜 시범 사업 공모에도 광주시 1곳, 동구와 서구·북구가 각 2곳, 남구와 광산구가 각 4곳 등 모두 15개 후보지(144만3866㎡)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이들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마을 공동체와 근대 건축물 등 도시 자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나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유서 깊은 공공 건축물인 남광주 역사와 광주여고는 이미 철거됐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인해 다수의 마을이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또한 역사를 간직한 시설들이 광주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 조사나 보존 대책이 없는 실정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외 자치단체들은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 쇠락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오래된 마을이나 공공 건축물을 도시 재생의 문화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광주 역시 문화를 매개체로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다. 이제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마을과 건축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자료 축적부터 서둘러야 하겠다.

無 等 鼓



“자, 죄송한데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지난 주말 오랜만에 광주 양림동에 들렀다가 생판 처음 보는 이에게 말을 걸었다. 한희원미술관 앞 골목길을 지나다 만난 20대 중반의 여성. 그녀에게 사진을 찍한 건 차림새 때문이었다. 와인색 원피스와 검은 띠가 둘러진 빌로드 모자, 검은 망사 장갑과 핸드백, 반짝이는 흰 샌들까지. 그녀는 완벽한 1930년대 ‘모던걸’이었다. 그녀가 손에 쥔 스마트폰만 없었다면,

1930년대 경성의 어느 거리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녀와 헤어지고 난 후 이번엔 모던보이

모던걸·모던보이

이와 모던걸 커플을 만났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푸른색 원피스에 하얀 레이스 양산을 든 여성을 열심히 앵글에 담고 있는 이는 체크무늬 양복에 노란 나비넥타이, 중절모를 쓴 모던보이였다.

이들을 보며 김혜수·박해일 주연의 영화 ‘모던보이’가 떠올랐다. 1920~30년대 명동과 충무로를 거닐던 모던걸들은 시인 이상이 열었던 카페에서 차 한 잔씩 마셨을 터다. 이상은 연인 김홍도와 함께 ‘재비’ ‘카페 쓰루’ ‘부기’ 등 5~6곳의 다방을 열었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로 유명한 박태원이나 김

소운 등 문단의 모던보이들은 이 다방의 단골이었다. 어찌된 오를 만난 저 여성도, 저 커피도 그 카페에 들르지 않았을까? 혼자 상상을 해 본다.

요즘 인기 있는 여행지에 가면 눈길을 붙잡는 모습이 있다. 평범하게 관광자를 구경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그 공간과 어울리는 옷과 소품을 갖추고 풍경 속으로 아예 뛰어드는 이들도.

아마도 출발은 ‘한복’일 듯하다.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한복 대여점만 수십 곳

이다. 경기전과 전통성당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이들로

인산인해다. 서울 북

촌마을을 역시 마찬가지다. ‘1913 송정시장’에선 추억의 교복을 입고 구경에 나서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안젠가 검은 교복에 ‘선도’ 완장을 찬 초등학교생 아들, 하얀 칼리와 주름치마 교복을 입은 딸과 활짝 웃으며 거리를 걷는 가족을 보고 싶어서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난다.

양림동은 우월순 사택, 오원 기념각 등 1930년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풍경을 ‘배경’으로 갖고 있다. 올 가을엔 모던걸·모던보이가 되어 ‘추억의 사진’ 한 컷 남겨 보시길.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의료칼럼

손 저림 증상의 다양한 원인



김 준 수
광주자생한방병원 원장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같은 때엔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흔히 손발이 저리면, 날씨가 춥기 때문이거나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무심코 넘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림 증상은 낮은 주파수의 진동과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며, 때로는 불쾌한 통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광주자생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손이 저릿하다’거나 ‘따끔거린다. ‘실린다’는 다양한 방식

을 통해 저림 증상을 표현한다. 심한 경우엔 ‘갑갑이 없다’, ‘남의 손 같다’, ‘손이 차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듯 저림 증상이 심해지면 손가락을 들지 못할 정도로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손과 팔의 마비 증세로 악화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날씨가 풀렸는데도 저림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가벼운 손 저림 증상이 아닌 팔에서부터 손가락까지 갑갑이 둔해지거나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목 디스크 등 다른 원인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손 저림 증상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한다면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켜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손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척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목 부위의 디스크가 제자리를 이탈해 신경을 압박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일명 목디스크다.

경추의 디스크를 감싸고 있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 디스크는 본래의 자리에서 튀어나온다. 제자리를 이탈한 디스크는 경추를 통과하는 신경을 압박해 어깨와 팔이 저리거나 당기고, 갑갑이 둔해지기도 한다. 목은 전신의 운동 능력을 지배하는 척수가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질병이 오고 나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예방 차원에서 평소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가사 노동이 많은 가정주부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의 근육과 손가락의 바닥 쪽을 지배하는 정중 신경이 손목에서 압박되면서 발생한다. 운전 중이나 손을 들고 일을 할 때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야간 중에 손을 주무르거나 털게 된다. 증상이 진행되면 엄지두덩이 근육이 위축돼 납작해진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